



숨막힌 박빙승부 PT 끝난후 광주로 기울어

〈프레젠테이션〉

개최지 결정 긴박했던 순간

대표단 6시간 사투 끝 얼싸안고 눈시울

브뤼셀=윤영기 기자

23일 현지시각 8시13분(한국시각 24일 새벽 3시 13분)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 발표 장소인 벨기에 브뤼셀 돌체 라 울프 호텔 오라토리움 캐노피에는 '광주, 광주'를 환호하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벨기에 브뤼셀 교외의 한적한 소에 있는 이 호텔에는 광주를 연호하는 함성으로 가득찼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가 광주로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3시께를 조금 넘긴 시간. 조지 킬리안 FISU 집행위원장이 개최지 발표를 위해 이 호텔 오라토리움 캐노피 내 단상에 올라서자 적막이 흘렀고 킬리안 위원장은 긴장된 듯 잠시 뜬 눈을 뒤엎어 광주 2015년 U대회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숨을 죽이고 조지 킬리안 위원장의 입을 주시했던 광주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환호성을 질렀고 '광~주, 광~주' 연호는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광주시는 이날 공개된 후보도시 심사 평가 결과에서 410점 만점에 397점을 받아 389점을 획득한 에드먼턴에 불과 8점차로 앞서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타이베이는 354점을 받아 일찌감치 승부에서 멀어졌다.

따라서 대회 개최지 최종 발표를 6시간을 앞두고는 광주와 캐나다 에드먼턴 간 숨막히는 경쟁이 시작됐다. 먼저 광주는 48분에 걸쳐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이 'Fine presentation'이라 총평할 정도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나선 캐나다 에드먼턴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답게 기존에 구축된 체육 인프라 소개를 바탕으로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긴장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각국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평가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듯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바로 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FISU



2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돌체 라 울프 호텔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로 광주시가 선정, 발표된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개최확정 인증서에 서명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정기자단)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가 비밀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최종 개최도시 발표가 진행된 돌체 호텔 지하 1층 방청객 강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고지 정복을 눈 앞에 둔 광주와 캐나다 에드먼턴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이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은 23일 오후 8시 13분(현지시각)께 밀봉된 카드를 꺼내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지가 광주임을 선언했다.

6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광주는 캐나다

에드먼턴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무너뜨리고 꿈에 그리던 대회 개최에 결국 성공하게 된 것이다.

조조하게 발표를 기다리던 박광태 광주시장, 정의화 광주 유치위원장과 김종량(한양대 총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도 광주 유치위 관계자와 한데 영커 얼싸안으며 대회 개최의 기쁨을 누렸다.

일부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2013년 U대회 첫 도전 실패 후 2년여의 힘든 여정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프레젠테이션

을 매끄럽게 진행했던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대회 유치를 위해 동고동락했던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종량 FISU 집행위원, 유치위 관계자들은 손을 힘껏 움켜잡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에드먼턴 조직위원회는 조지 킬리안의 발표와 동시에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으며, 에드먼턴 유치위 위원장과 참관단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penfoot@kwangju.co.kr

李 대통령 축전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에 축하전문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FISU총회에 정부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위를 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 유치는 우리나라와 세계 대학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팍팍히 노력해 오신 유치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유치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광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축전을 통해 유치위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광주 대표단 오늘 입국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성공한 박광태 광주시장 등 대표단 일행이 25일 오후 3시 30분 광주공항에 도착한다.

시는 최종단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이상 간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이 광주공항에 나가 영접하고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환영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장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 20여 분 간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의 환영인사, 박시장 귀국인사, 기념촬영 등 간단히 치러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박시장, 안팎 우려 불구 재도전 패거 정의화·김종량, 국내외 든든한 지원

유치 주역들

광주시민의 꿈과 기대를 현실로 일구려 주역으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정의화 광주 U대회 유치위원장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든 배봉을 수 없는 유치의 주역이다.

광주시가 국제도시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을 제치고 2015 U대회 유치에 성공한 원동력은 자신의 힘을 다해 유치전을 이끌어 온 이 '드림팀'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U대회 유치의 수훈감은 단연 박광태 광주시장이다. 박시장은 U대회 재도전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타고난 승부 근성을 바탕으로 대회 재도전을 독심으로 밀어붙여 패거를 일궈냈다.

그는 전 세계 20여개국에 포진하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특유의 스킨십으로 광주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투표 직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역대 최고 대회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막판 표심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맨'으로 불린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U대회 재도전 성공의 견인차로 통한다. 그는 지난 2013 대회, 이번 유니버시아드까지 유치전략 수립, 실사준비, 지지표 확보 등 U대회 유치전을 사실상 도맡아 왔다.

그는 U대회 실사가 끝난 지난 4월부터는 FISU본부에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물론 유럽 각지를 순회하면서 FISU 집행위원 접촉, 해외 정보수집 등 유치기간 내내 해외에 머물러왔다.

FISU총회에서 환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최종 PT도



정의화 위원장 김종량 위원장 김윤석 부시장

사실상 그의 작품이다.

국회 영·호남 화합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 유치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기꺼이 중책을 맡아 대회 유치를 큰 힘을 보탤다. 그는 지난 4월6일 이명박 대통령의 FISU실사단 면담을 성사시킨 데 이어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 U대회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 위원장은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광주 지지를 당부하는 서신을 의원들에게 들려보내고 유치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종량(한양대 총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은 광주시의 U대회 첫 걸음부터 함께 해온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FISU 집행위원인 그는 FISU 내에서의 폭넓은 교류와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1994년 '97세계 U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95년 U대회' 한국 선수단장을 지낸 그의 경험도 U대회 유치의 밑거름이 됐다.

지난 2013년 대회 후원회장을 맡았던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은 이번 유치전에서 선수단 항공료 대폭 할인, 전세계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광태 시장 "열정 보내준 시민들에 모든 영광 돌린다"

"광주 시민들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3일 밤(한국시각 24일) 벨기에 브뤼셀 돌체 라 울프 호텔 미디어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시장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의 영광과 기쁨, 희망을 모두 광주 시민들에게 돌린다"며 "시민들이 2년 동안 하나로 똘똘 뭉쳐 대회 유치를 온 정성을 쏟은 결과 대회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시민의 정성, 열정에 FISU 집행위원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대회 유치의 공을 광주시민에게 돌렸다.

박시장은 대회 유치 성공비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의지가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위원들에게 잘 전달된 데다 시민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게 결정적인 승인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U대회가 대회 사상 유래 없는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U대회 개최로 광주의 브랜드가 국제대학 FISU 170개 회원국에 인식되는 한편, 170개국 학생들과 대한민국, 광주 학생들의 교류계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3일(현지시각)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로 광주시가 선정되자 박광태 광주시장이 김윤석 경제부시장을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첨단 지능형 영상관리시스템, 세콤V

IT is on SECOM